

## 광주 지하철, 터미널·야구장 연결 계획 없다

광주시, 지선 건설 계획 없이 시내버스 노선 대대적 개편 추진  
광천터미널 2호선 연계 외곽 이전 논의도 없어 ... 논란 클 듯

광주시가 2023-2025년 도시철도 2호선 단계별 개통에 맞춰 대대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 작업 추진에 나선다. 내년부터 3년간 10억원을 투입, 도시철도 1·2호선을 중심으로 한 버스노선 재편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용역 비용과 기간 등이 전례 없는 규모라는 점에서 광주 대중 교통 체계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하지만, 이번 대중교통 체계 개편 작업이 광주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유스퀘어)의 도심 외곽 이전(2호선 연계)이나 버스터미널·야구장(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을 잇는 도시철도 2호선 지선 건설 계획이 없다는 점에 대해 추진되면서 경우에 따라 논란을 몰고 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버스터미널의 경우 KTX(고속철도) 개통과 광천동 교통 혼

잡, 도시철도 1·2호선 미경유 등의 이유로 2호선과 연계한 외곽 이전설이 수시로 제기됐고, 1호선에 더해 2호선도 버스터미널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머지 않은 장래에 지선 건설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었기 때문이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중심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 추진을 위해 현재 예산 반영 절차(용역과제심의위 심의)를 진행 중이다. 용역 기간 3년에 예산은 9억9200만원이다.

지난 2016년 버스노선 개편 관련 용역이 1년 동안 사업비 2억3000만원에 추진됐던 것을 고려하면 전례 없는 규모다. 따라서 대대적이고 짜임새 있는 노선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광주시 측의 설명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시철도와 중복되는 시내·마을버스 노선 재배치 및 환승 연



계 방안 ▲시내버스·도시철도·마을버스 간 기능분담 방안 ▲도시철도와 연계한 다양한 교통수단 검토 ▲대중교통 체계 효율성 제고 방안 및 노선 개편에 따른 효과 분석 ▲경제성 떨어지는 노선 대책 마련 등 운송원가 절감 방안 등을 다루게 된다.

현재 광주 시내버스는 100여개 노선에 1000여대가 운행 중이다. 연간 600억~700억원 수준의 재정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광주시는 내년 초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2023년 3월까지 용역을 마무리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받아 대중교통 체계 개편 정책 결정에 참고한다. 이어 2023년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총 3단계 공사) 이전에 광주시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다.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연계를 위한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외곽 이전 ▲야구장-버스종합터미널을 연계하는 2호선 지선 건설이 향후 일정기간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시내버스 노선 개편 논의 과정에서 2호선 지선 건설 및 버스터미널 도심 외곽 이전 목소리가 시민사회 등에서 터져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어 보인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알립니다  
영·호남 문화 대축전

10월 25~27일 대구 상화동산  
상생·교류 다양한 프로그램  
양 지역 농·수·축 특산물 판매

영·호남 지역민들이달구벌 대구에서 만나 정겨운 소통의 잔치를 벌입니다.  
영·호남 대표 언론사인 광주일보와 매일신문은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 특설행사장에서 '영·호남 문화 대축전'을 개최합니다.  
2014년 서울을 시작으로 이후 대구와 광주에서 번갈아가며 개최되는 이번 대축전은 영·호남 화합과 상생을 다지고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참가자 모두가 흥겹게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영·호남 지역에서 엄선된 농·수·축 특산물이 준비돼 있습니다.  
영남과 호남의 상생과 교류 확대를 목표로 열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두 지역은 라이벌이 아닌 소중한 파트너로 거듭날 것입니다. 민족 대통합의 시발점이자 동서화합의 교두보가 될 이번 대축전에 광주·전남·전북 지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행사명 : 2019 영·호남 문화 대축전
- 일시 : 2019년 10월 25일(금)~27일(일)
- 장소 : 대구광역시 수성못 상화동산 특설행사장
- 주최·주관 : 광주일보사·매일신문사
- 홍보판매부스 운영자 모집 : 호남권 특산물 생산단체(선착순 모집·배치)
- 문의 :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062-220-0555

光州日報社

##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경기 연천농장에 영광 종돈장서 새끼돼지 20마리 분양했다

전남도·양돈농가 '긴장'

"백신도 없고 감염 경로도 모르고...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남지역 양돈농가와 방역 당국이 초긴장 상태다. 총력 방역을 했다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 파주에 이어 연천까지 확대된데다, 영광지역 종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연천 농장으로 새끼돼지 20마리를 분양한 사실까지 전해지면서다.

치사율 100%인 병인데도 예방 소독과 차단 방역 외에는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탓에 답답함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축산농가들은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농장을 떠나지 못하며 노심초사하고 있으며 당국은 유입 경로를 모르는 만큼 의심스러운 모든 감염 '루트'를 방역 벨트에 포함해 차단·소독하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당장, 전남도는 소독과 차단을 위한 10개 전략을 마련, 총출동해 '방역 벨트'를 태풍 상처 ... 추수 앞둔 농심 한숨 ▶6면  
정찬주 다큐 소설 '광주 아리랑' ▶9면  
방어를 끝낼 →1위 '양현종 드라마' ▶20면

꾸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우선, 580개 농가에 담장을 둘러치듯 생석회를 뿌려 외부 매개체를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멧돼지와외의 전정에도 돌입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야생 멧돼지를 '숙주'로 삼아 유입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멧돼지 포획을 103개 농장에 지원해줬고 멧돼지를 쫓아내는 기피제도 나눠줬다. 북한에 돼지열병이 발생한 뒤에도 3개월이 넘도록 울타리 설치 등 차단 방역 조치를 미뤘다는 지적(광주일보 9월 18일 3면)과 관련, 일선 사군에 공문을 보내 야생멧돼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선적으로 울타리를 둘러치는 '선 설치 후 지원'을 독려하고 있다.

오는 11월부터 순천·보성에 운영될 수렵장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총기로 멧돼지를 포획하는 경우 총소리에 놀란 멧돼지 이동이 많아져 바이러스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부가 최근 경기 북부와 인천 등에 멧돼지 총기 포획 중지를 요청한 것을 고려한 조치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 출신 외국인 노동자도 밀착 점검에 들어갔다. 이들이 근무하는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 매일 전화로 이상 여부를 살피고 일주일에 두 차례 방문해 확인하도록 했다.

감염경로가 드러나지 않아 '타깃 방역'을 할 수 없는 만큼 22개 사·군에 거점소독 시설을 마련해 방역에 들어가는 한편, 사·도 경계지역에 이동통제초소를 운영중이다. 도내 가족 등에 대한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 뿐 아니라 타 지역 축산 차량의 전남 이동도 막고 축산 농가 모임을 전면 금지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유입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차단 방역을 총출동해 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고강도 방역에 대한 농가와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전남지역의 돼지 사육 규모는 580개 농가에 113만5000마리로 전국의 10%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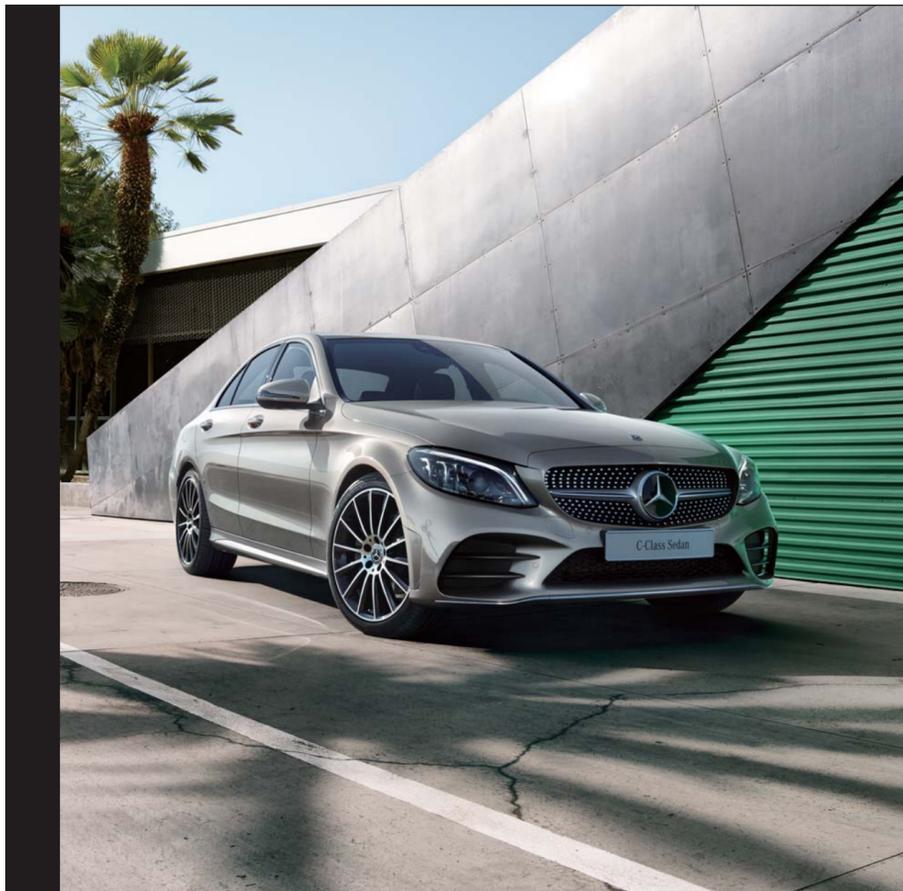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전공대 교수진 50명 ... 1명당 최고 연봉 4억원 이상  
한전, 설립 기본계획안 발표

2025년 100명 등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외국인 교수 비중은 전체 15%로, 국내 과학기술 특성화 5개 대학의 평균 외국인 교수 비중(자연과학 10%·공학 6%)보다 높다.  
교수들의 연봉은 석학급 평균 4억원, 정교수 2억원, 부교수 1억4000만원, 조교수 1억2000만원 등이다. 과학기술특성화대학들보다 1.5배 높게 책정된 금액이다. 업적·성과에 따라 직급 내 연봉 수준을 차등화하고 석학급 교수는 '탄력적 대우'를 해주기로 한 만큼 최고 연봉은 4억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2022년 3월 개교하는 한전공대 교수진은 50명 규모로, 1명당 최고 연봉은 4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전은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한전공대 교수의 수급계획과 처우·지원 체계 등을 소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나주시 부영CC 부지 40만㎡에 세워지는 한전공대 규모는 교수 100명 외 대학원 600명, 학부 400명, 직원 100명이다. 설립·운영비는 2031년까지 총 1조6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이 중 절반가량을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한전은 2022년 개교 때 교수 50명을 확보한 뒤 2023년 60명, 2024년 75명,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Never stop improving.  
The New C-Class Sedan.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C-Class.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20 d (배기량: 1,995cc, 공차 중량: 1,650kg, 자동9단), 복합연비: 14.4km/ℓ(도시연비: 13.2km/ℓ, 고속도로연비: 16.3km/ℓ), 등급: 2등급, 복합CO<sub>2</sub>배출량: 131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